

심사위원	윤정현
심사번호 : 1	<p>전시공간과 공용공간 그리고 외부 테라스로 이어지는 전시공간의 확장성을 주요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내부공간과 연계성이 시각적인 효과에 머문 것이 아쉬우며, 테라스 조경 설치와 더불어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점도 문제로 보인다. 더불어 전시공간의 확장에 따른 전시 유연성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공용공간의 축소로 피크타임시 대처등에 문제가 있어보이며, 미디어 갤러리의 고정된 계획으로 높은 층고를 활용한 전시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어보인다. 다만 사무실 영역의 계획에서 새로운 시도로 전시공간의 후면에 집중 배치한 점은 참신해 보인다.</p>
심사번호 : 2	<p>실현가능한 리모델링 계획을 제안한 안 중 하나이며, 내부공간이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활용계획이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는 장점이 있어보인다. 다만 기존건물의 문제중 하나인 공용공간에서 동선의 혼재와 복잡성의 해결이 단순히 주출입구의 변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으며, 로비로 2Way로 진입하는 방식이 티켓팅 등 아무리 모바일 시스템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더 많은 혼잡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좋은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는 수장고에 대한 제안은 타안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보인다.</p>
심사번호 : 3	<p>이 계획안은 주어진 과제에 비교적 충실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개념이 약하고 디테일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건축보다는 인테리어적인 태도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2층 공용공간에 임대형 강의실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참신하긴 하지만, 위치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다만, 전시공간의 자동문 및 자립형 모듈 계획, 층고 확보를 위한 천정시스템, 장애인용 고려한 화장실 개선 등은 현실성을 고려한 좋은 계획으로 보인다.</p>
심사번호 : 4 [당선작]	<p>원설계자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고, 원설계의 복원과 개선, 새로운 질서 정립에 의한 공간의 재구성 방식이 매우 훌륭하다. 미술품을 위한 전시공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접근 동선을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2층 공용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과 머무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계획 되어있다. 전시공간의 확장으로 상설전시벽, 미디어아트월이 공용공간에 면해 있어서 다양한 전시체험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보안과 유지관리 부분 문제는 차후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설계에 있었던 천창 복원의 경우도 누수 등 미술관에 취약한 부분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심사번호 : 5 [우수작]	<p>이 계획안은 기존 전시공간 구조를 그리드체계를 통해 전체공간으로 확장 및 재편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훌륭해 보인다. 칸의 모듈을 통한 격자형 구조가 평면, 입면, 천정까지 확장되어 전체적으로 유니크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운영적 측면에서 전시공간이 다소 분절되어 있는 점은 개별 운영시 관람객 접근과 전시품 설치시 동선 단절 등 제한이 있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시공간의 구조를 과감히 변환시켜 새로운 공간을 만드려는 노력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p>
심사번호 : 6 [가작]	<p>단순한 대관전시에서 다원미술의 포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감한 전시공간을 제안하고 있는 점은 훌륭해 보인다. 원설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 통합을 통한 제대로 된 300평대의 전시공간을 만드려는 디자인 의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열린 전시와 참여형 전시를 결합하여 전시공간의 변화를 주도록 의도한 점은 장점이거나, 희생된 공용공간의 축소에 의한 접근동선의 문제와 운영적 측면의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p>

심사번호: 7

이 계획안은 소규모, 대규모 전시가 모두 가능한 가변적 전시계획으로 과제에 충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전체적인 개념으로부터 연결되는 의도가 불명확하여 제시된 자료로는 물리적이고 단편적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어 안타까움이 있었다. 카페테리아 위치, 이벤트홀 영역의 성격, 테라스 활용성 등 계획안의 모호성이 계획안의 완성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다만 타사에 비해 공사비 내역 및 리모델링 일정계획 등이 상세히 제시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24년 11월 8일 (금)

심사위원 : 윤정현

(서명)

심사위원별 심사의견

심사위원	김성일
심사번호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1전시실과 3층 2전시실 간의 2개층 개방된 전시공간을 미디어아트전용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 폐쇄 시킨 방안은 다양한 전시품 및 행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3,4층 동측의 기존 전시 공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사무공간을 구성한 방안은 전시 공간 외부의 공용 서비스 공간의 면적을 협소하게 만듦. - 사무공간 전용의 복도의 면적이 너무 과도해 보임.
심사번호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층 2개 전시실의 연결 부분의 통로 공간을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기존의 서비스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통합 전시회를 감안하면 관리 운영 상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 - 기존 각 층 외부 모든 옥상을 전시, 휴게 공간으로 설정한 방안은 공용 공간의 외부로의 확장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전체의 옥상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일부 옥상 공간에 특화된 활용 방안이 필요해 보임.
심사번호 :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공간 및 공용공간의 구성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음. - 메인로비의 아트샵을 없애고 강의실의 용도로 전환시킨 방안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적절한 위치 설정이라고 보기는 힘드며 활용 가능한 공용 공간이 통로 로서만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4층의 5전시실의 전체를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상주 직원 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해 보임.
심사번호 : 4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로비가 있는 주출입층의 복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동선 흐름의 새로운 제안은 신선해 보이며 막혀있던 로비층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짐. - 또한 공용공간을 상설전시공간으로 확장한 아이디어는 전시공간의 또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함.(관리운영상의 아이디어는 필요할지라도) - 메인 로비층인 2층에 사무 공간을 설정하기보다는 전시 공간 또는 관객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심사번호 : 5 [우수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3층의 전시 공간을 가로로 분할하여 중앙 퍼블릭룸을 사이에 두고 작은 전시 공간을 배치한 방안은 다양한 전시의 성격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공간에 적합한 전시 대상의 경우는 차별화된 전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존 메인 로비의 카페테리어를 2층으로 변경 배치한 방안은 관객편의상 원래의 메인 로비층으로 배치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번호 : 6 [가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공간이 의도적으로 확장되어 전시공간 못지않게 중요한 다양한 행위를 담는 공용공간의 건축적 정체성이 모호해짐. - 기존 에스컬레이터공간인 3개층 오픈스페이스가 전시공간으로 편입되면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특화된 건축제안이 부족함.
심사번호 :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층 전시장의 일부를 이벤트홀 및 특별 전시로 설정한 것은 전 후 전시 동선 상의 맥락을 비취보았을 때 적합해 보이지 않음.

- 전시 공간 및 공용 공간의 배치가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있어 리모델링하려는 미술관의
차별화된 새로운 대안이 보이지 않음.

2024년 11월 8일 (금)

심사위원 : 김성일

(서명)


심사위원	김윤수
심사번호 : 1	문제의 제시와 해결에 대한 세세한 확인이 있으나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테라스의 적극 활용과 사무공간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이 있음. 긴복도의 필요와 추가 엘리베이터의 설치 필요, 그로 인한 전세장 형태의 비규격화 등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심사번호 : 2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로 엮는 중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가람 미술관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한 접근이 피상적이다.
심사번호 : 3	기존 전시공간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시적 접근만이 있고, 전체 공용공간에 분석과 이에 따른 본질적 개선에 대한 방법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심사번호 : 4 [당선작]	1층 전시실의 축소와 에스컬레이터의 철거를 통해 미술관의 이동속도와 방식을 변화를 시킨 부분과, 상설전시벽의 개념으로 전체 공용공간의 변화를 모색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현재 기획전시마다 전시벽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운영의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해보인다.
심사번호 : 5 [우수작]	기존의 공용공간의 체계를 바꾸고 이를 통해 공용공간의 활용을 2-3층으로 확장시킨 도전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한가람 미술관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쪼개진 전시관들이 가질 다양한 공간이 다양한 운영으로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심사번호 : 6 [가작]	현대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작업이다. 한가람 미술관의 단일 건축물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지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한 점이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 제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방식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운영의 상황의 변화가 건축이 먼저 변하고 이에 운영이 따라야 한다고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가 먼저 필요해보인다.
심사번호 : 7	현재 한가람 미술관의 운영방식에 필요한 공간들을 큰 변화 없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계획안이다. 이벤트홀과 특별전시관을 제안하고 중성적 공용공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공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되지않을까 하는 실제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24년 11월 8일 (금)

심사위원 : 김윤수 (서명)



심사위원	김동일
심사번호 : 1	본 제안은 다양한 테라스와 미술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내부전지 부속시설과 외부공간의 관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계획안 안으로 조직적인 공간구조가 돋보이며, 과업의 개별 중점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되었다. 하지만 실내 전시공간의 경우 공간을 세분화하여 전시 공간을 구성하면서 발생하는 전시공간의 유연성 결여가 아쉽고, 외부공간의 다양한 제시에 도 불구하고, 실제 내부공간과의 적극적 연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번호 : 2	본 계획안은 과업의 내용을 잘 담아내며, Moving Museum of Art라는 개념으로 공용공간, 외부테라스, 전시공간까지 명확하게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전시공간과 지원공간과의 관계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외부공간을 전시의 공용공간과 연계 및 개별 공간 특화가 인상적이다. 전시공간의 경우 층별로 전시실들 사이에 비주얼 커리더라는 개념으로 지원 및 판내시설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심사번호 : 3	3번 계획안은 현재 한가람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천장고 확보, 하역장의 시스템적 개선, 화장실의 개선등 세밀하게 재료부터 공간의 상세에 대해 기술적으로 프로젝트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제안서에서 한가람 미술관의 목적과 미래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심사번호 : 4 [당선작]	이번 계획안은 한가람 미술관을 넘어 예술의 전당 마스터 플랜 내에서 미술관을 바라보며, 과거 기억의 복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계획안이다. 우선 전시공간뿐 아니라 공용공간에 대해 상설전시벽, 걸음 전시관과 같은 공간을 제안하며, 미술관 전체가 전시공간으로 인지되도록 풍부하게 평면 및 단면계획을 볼수있었다.이번 당선작으로서 걸음전시관의 미디어 전시관 및 상설전시벽에 대한 상세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 및 보안관련 계획들을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한다.
심사번호 : 5 [우수작]	우수작인 5번작품의 경우 미술관의 도시에서의 역할에 대해 바라보고, 예술의 전당의 조형원리부터 상세까지 일관되게 밀도있게 다룬 작품이다. 현재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한계를 전체 전시공간의 공간구조를 흔들며 입체적인 공간계획으로 제안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퍼블릭 룸이라고 정의한 중성적인 공용공간은 전시 및 공용영역을 넘나들며 흥미롭게 작동할것으로 보이며, 한가람 미술관이 다음세대를 맞이할 신선한 변화를 만들어 낼것이라 판단된다.
심사번호 : 6 [가작]	6번안의 경우 이번 제안공모에서 2,3층의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장하여 극적인 공간구조를 제안하고, 단면적으로 전시공간에 불리한 4층에 교육 및 지원공간들을 집중배치 한 점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미래전시공간의 유연하고 우연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제안이 흥미롭지만, 한가람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운영 및 규모의 절대적 한계를 바탕으로 비추어 보면, 단일대규모의 전시공간이 한가람 미술관의 고유한 전시공간의 특성을 담아낼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심사번호 : 7	7번 계획안의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평면적 단면적 계획측면에서 밀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층마다 공간계획과 특화공간들, 외부공간과의 연계, 전시공간의 평면시스템 및 유연성등 많은 부분 계획요소들이 눈에 띈다. 효과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번 제안에서는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중요한 건축가의 의도와 비전을 읽을수 없어
아쉬웠다.

2024년 11월 8일 (금)

심사위원 : 김동일  (서명)

심사위원	정구헌
심사번호 : 1	테라스와 미술관의 만남이라는 주제처럼 외부 테라스를 활용하는 계획은 좋음. 다만, 테라스의 기능이 휴식과 조경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실제 액티브한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높을지 의문스러움. 또한, 공용 공간 개선이 외부 테라스의 확장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이나, 실내 공간과의 연계를 잘 설명하지 못해 아쉬운 측면이 있음.
심사번호 : 2	무빙 뮤지엄이라는 개념은 신선하게 다가옴. 유연하고, 열리고, 녹색이라는 개념이 잘 드러나는 계획안이라고 보여짐. 입체적 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계자의 의도가 전시 공간과 전이공간에서 잘 드러남. 운영적 제안에 대한 설계자의 의도가 잘 표현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심사번호 : 3	미술관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계획안으로, 층고 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치들을 미술관 전체에 배치하였음. 다만, 설계자가 의도한 가벼운 느낌의 화이트 큐브보다는 재료의 선택이 디자인 의도와 배치된다고 사료됨. 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 컨셉이 섬세한 디자인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램.
심사번호 : 4 [당선작]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개념적 측면을 잘 설정하였음. 기존 건축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서를 재정립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미술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좋음. 유기적 구성이 각 층별 평면에서는 잘 드러나지만, 실제 사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단면적 공간감이나 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심사번호 : 5 [우수작]	열린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그리드를 사용한 효율적 디자인 접근은 매우 신선함. 그리드를 세심하게 다룸으로써 보여지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유연함을 제공하고자 했던 설계자의 의도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 보임. 작은 전시실과 퍼블릭 룸이라는 신선한 개념이 흥미롭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관람객 동선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심사번호 : 6 [佳作]	열린 전시장 계획을 통해 높은 층고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부분이 좋음. 전시 공간의 확장을 통해 공용 부분 일부가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음. 테라스와 같은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용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해봄직 함.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립은 매우 우수하고, 3개층을 사용한 보이드 공간은 면적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공간적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심사번호 : 7	전이 공간을 전시실 사이에 두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 인상적임. 다만, 공간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고, 외부 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공용 공간의 확장성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2024년 11월 8일 (금)

심사위원 : 정구헌

서명